현불논단

소셜네트워크 시대와 '던바의 수'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시공 초월한 소통 가능해진 시대
빠른 친구 맺기로 관계 폭 넓혀
친구와 가족들과 연결도 높아져

진화생물학자 던바 교수 주장 눈길
"현실 도움 청할 친구, 3~5명 정도
호혜적 관계 최대 인원은 150명"

SNS 친구 증가가 관계 증가 아냐
'던바의 수' 현 관계 맺기에 일침

소셜네트워크 기술은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관계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가져다줬다. 시공을 초월한 동시적이고 비동시적인 소통 환경은 만남과 관계 맺기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특히 스마트폰과 SNS의 확산으로 인해 친구 재회나 관계의 강화는 물론이고, 면식 없는 사람과도 신속한 친구 맺기가 가능함으로써 인간관계의 폭을 손쉽게 넓힐 수 있게 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2021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 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이용 이유에 대하여 정보와 콘텐츠 이용 다음으로 지인이나 소셜미디어 친구와의 소통과 교류라고 답변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인류학자이자 진화생물학 교수인 로빈 던바는 1992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친구를 필요로 하나"라는 원제를 가진 〈발칙한 진화론〉에서 한 사람이 사귀면서 믿고 호감을 느끼는 진짜 친구의 수는 최대 150명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위 던바의 수(또는 던바의 법칙)로 알려진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실에서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진짜 절친한 친구가 3~5명이고, 공감 집단이라고 부를만한 친한 친구가 12~15명이며, 이들이 어우러져 150명의 네트워크를 이룬다고 한다.

던바의 수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호혜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 인원수를 말하는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던바의 주장이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 친구가 1천 명 이상인 이용자조차도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친구는 150명 내외이며, 그중 밀도 있게 소통하는 수는 20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친구의 대다수가 그냥 목록만 채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다. 던바의 수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있어서 관계는 양적 크기보다 질적 깊이가 중요하다는 통찰을 준다.

인간관계의 질은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도 밝혀졌다. 하버드대학 성인 발달연구소가 1938년부터 무려 80여 년간 수행한 행복과 건강에 관한 연구에서 내린 최종 결론은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만들고,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연구진은 친구의 수나 관계의 안정성과 공인성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소셜네트워크 속의 인간관계는 친구가 증가할수록 관심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관계의 질적 저하, 즉 관계의 피상화로 귀결될 수 있다. 디지털 정보의 공급이 증가하였을지라도 이용자들의 관심이 비례하여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주어진 시간 자원의 제한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SNS 친구의 수가 양적으로 많다는 것 자체만으로 디지털 인간관계가 성공적일 개연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소셜네트워크 속 인간관계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교류가 없는 온라인 친구부터 과감히 정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연 같은 뜻밖의 만남과 관계에 놀라곤 하지만 사실 어떤 만남도 우연인 것은 없다. 인연설은 우리의 만남이 지난 과거의 삶을 통해 맺어진 인연에서 비롯됨을 말해준다. 불교에서 겁(劫)은 시간의 단위로 계산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을 일컫는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으나, 500겁의 인연이 있어야 비로소 옷깃을 스칠 수 있다고 하니, 그 숨은 사연들을 어찌 다 헤아리겠는가. 중요한 것은 결국 인연을 대하는 태도이다.

소셜네트워크 시대는 온라인 친구 맺기를 통한 인연 짓기가 쉬운 세상이다. 던바의 수는 소셜네트워크 속 친구 관계의 적정선을 점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연 짓기를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질적 관계 관리에 힘쓸 것을 말해주고 있다.

社 說

시대의 법문 되새기며 정진을

조계종 역대 종정예하의 친필 휘호 현판들이 서울 강남 봉은사에 걸렸다. 봉은사는 10월 5일 경내 상월선열당과 구생원에서 현판식을 봉행했다.

상월선열당 안팎과 구생원 외부에 걸린 현판은 모두 20개로 조선불교조계종 초대 종정 한암 스님과 조계종 제1대 종정 효봉 스님을 비롯해 2대부터 15대 종정예하 성파 스님까지 역대 종정예하의 정신과 유훈이 담긴 글귀가 현판으로 구현됐다. 또한 조계총림 송광사 초대 방장 구산 스님, 월정사의 대강백 탄허 스님의 친필도 현판으로 제작됐다.

이날 현판식은 봉은사 회주이자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역대 종정예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상월결사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모든 대중이 함께 도모하기를 염원하며 마련됐다고 한다.

세속에서는 옛 것을 오래된 구식이라 치부하기도 경향이 있지만, 불가에서 선현의 가르침은 지금도 새겨야 할 금언(金言)이다.

'사바세계를 교화해 중생을 구제한다' 는 '교세제민(敎世濟民)',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 는 '불기자심(不欺自心)', '그 마음 그대로 부처' 를 의미하는 '즉심시불(卽心是佛)' 등 상월선열당과 구생원에 걸린 현판들은 선지식들이 현재 후학들에게 전하는 시대의 법문들이다.

"역대 종정 스님들이 지금 계신다면 시대에 걸맞게 종단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법문을 해주셨을 것"이라고 자승 스님이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봉은사에 걸린 선지식의 친필 현판을 통해 가르침을 되새기고 미래 후학들 키워내 불교중흥을 이뤄낼 수 있길 기대한다. 이 모든 것은 현재 후학들이 해야 할 책무다.

한국전쟁 불교 인명피해 조사 필요

조계종이 한국전쟁으로 인한 불교계의 인명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 조사 사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최근 동국대 동국역사문화연구소와 함께 '한국전쟁 전후 불교계 희생자 기초 조사 사업 연구' 착수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연구 사업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는 1948년부터 1955년 사이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한국전쟁 전후 불교계 인적 피해 상황을 목록화해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추진됐다. 종단 기록관 고문서 및 사찰 간행물, 정부와 지자체 연구물, 전쟁 당시 정부 및 군경의 조사 기록 등을 토대로 시기별, 지역별, 유형별로 목록화한다는 게 조계종 사회부의 계획이다.

조계종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불교계 피해 조사를 지속해 왔다. 2002년을 시작으로 5차례 걸쳐 한국전쟁 당시 피해를 입은 성보유산들을 조사했고, 총 5권의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각 지역 사찰들의 피해 원인이 미군의 폭격과 군경에 인한 방화 등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당시 연구진들은 한국 군경에 의해 훼손된 불교문화재를 복원하는 데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누락됐던 역사들을 다시 찾아내는 것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다행히 건물, 문화유산 등 재산 피해 현황은 여러 문서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인명 조사는 생존자 구술 등이 필요해 어려움이 많다. 불교계의 아픈 과거가 멸실되지 않고 전해져 명예회복과 치유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부대중의 관심이 필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⑲ 故 이청준 소설가의 작품들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다

올해 여름 이윤옥 평론가가 〈이청준 평전〉을 발간했다. 이윤옥 평론가는 "인문학적인 질문을 하게 하고 인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하게 하는 작가가 바로 이청준"이라며 평전 출간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다시 태어나는 말' 은 초의 선사의 동다송(東茶頌)이 언어 정신의 타락상을 넘어서는 한 지경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소리꾼 누이를 찾아다니는 남자의 이야기와 초의 스님의 다도(茶道)에는 동일하게 '마음을 뜨겁게 덥혀오는' 삶에 대한 화해가 있음을 역설한다는 점에서 '남도사람' 연작과 '언어사회학서설' 연작의 마침표를 찍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흐르는 산' 은 일제 말기에 일본인 관리에게 사적인 복수를 한 뒤 대원사로 숨어든 주인공(남도섭)이 장좌불와(長坐不臥)의 수행을 하는 무불 스님을 관찰하는 과정에 자리이타(自利利他)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작품이다. 무불 스님은 일경 형서부의 보조원이었는데, 죄인이 스스로 혀를 깨물어 자살하는 것을 목도하고 출가했다. 이러한 이력으로 보면, 무불 스님의 수행은 참회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런 까닭에 남도섭은 "배고픈 사람에게 밤 한 술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상한 손가락 하나 아픔을 덜어줄 수도 없는 행위를 이타행으로 볼 수 있느냐" 고 자문한다. 그 해답은 "자기 아픔이 산처럼 쌓여 지혜로 높아지는 경지에 도달하면 그 아픔과 지혜의 흐름이 자연 큰 자비의 물줄기로 먼 곳까지 미친다" 는 것이다.

심지어 기독교 목사의 일대기를 그린 〈낮은 데로 임하소서〉조차도 불교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 작품의 말미는 눈이 먼 목사가 어둔 방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내용이다. 목사가 반갑게 인사말을 건넸으나 손님은 웬일인지 아무 대꾸도 없이 방 안만 이리저리 두리번거렸다. 그러고 나서야 손님은 목사의 모습을 알아보고 말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두운 방에서 혼자 그러고 떨고 계십니까?"

손님의 말을 듣고서야 목사는 커튼이 내려진 창문 쪽으로 걸아가면서 농기가 섞인 말투로 한 마디 덧붙였다. "전 이따금 제가 보는 것만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 놔서요."

필자에게 〈낮은 데로 임하소서〉를 읽어보라고 권하는 것은 설악 무산 대종사이셨다. 말끝에 대종사는 "그 끝을 읽고 나면 절로 무릎을 손바닥으로 치게 될 거야"라고 덧붙였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의 말미는 〈무문관〉 28칙 '구향용담(久響龍潭)' 을 떠올리게 한다. 밤이 깊은 까닭에 용담 스님이 지등(紙燈)에 불을 붙여 덕산 스님에게 건네주었다. 덕산 스님이 지등을 받으려고 할 때 용담 스님은 입김으로 불을 꺼버렸다. 덕산 스님이 지등의 불빛이 꺼지는 순간 깨달은 것은 바로 문자 밖에 있고 경전 밖에 있는 선지(禪旨)였을 것이다.

〈소설가〉

